***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 STUART GREAVES INTIMACY WITH THE TRINITY IN THE CONTEXT OF ESCHATOLOGY***

Session 6: The Glory of Christ’s Humble Love (John 13)  
 제 6강: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랑의 영광 (요한복음 13장)

# OVERVIEW 복습

* 1. The primary theme Jesus speaks to His disciples about, in ***Jn. 13-17***, is the subject of God’s love and glory. Jesus’ main objective is to lead the Church into the revelation of God’s divine love. It is our destiny to experience the glory that He possessed with His Father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Our destiny is to be wrapped up into the eternal fellowship of the Godhead forever.  
     예수님이 요한복음 13-17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계시 안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영원 토록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둘러 싸여지는 것이다.

## 4…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1 Jn. 1:4) 4…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4)

* 1. The primary destiny and inheritance of the Church is to experience deep intimacy with the Trinity. We are called to an experiential union with God (intimacy) and unity with the saints. (Jn. 13:34; 14:11; 15:4-7, 9-10, 12; 17:10-11, 13, 21-23, 26). Interacting with the Trinity is the way forward.  
     교회의 주요한 부르심과 유업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체험적 연합 (친밀함)과 성도와의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요 13:34; 14:11; 15:4-7, 9-10, 12; 17:10-11, 13, 21-23, 26). 삼위일체와 상호작용하며 교제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2. Jesus said that the purpose of His instruction in Jn 13-17 was to equip His followers to walk in victory under the growing global pressure. He instructed His disciples that in dialogue with the Godhead, our hearts will be filled with peace and joy to keeping us from falling way under pressure.  
     예수님은 요한복음 13-1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커져가는 전 세계적인 압박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격의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가리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져서 압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 1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Jn. 15:11) 1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 (요 15:11) 1“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you should not…stumble [fall away].” (Jn. 16:1) 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배교하지] 않게하려 함이니 (요 16:1) 33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 (Jn 16:33) 33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 16:33)

* 1. The Upper Room discourse is a blue print (pattern) and map (pathway) to the glory and destiny of the Church. Waiting on the Lord by interacting and responding to Him is key to making our hearts ready.  
     다락방 담론은 교회의 영광과 부르심에 대한 청사진 (패턴)과 지도 (통로)이다. 주님과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열쇠이다.

## “…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 19:7)

* 1. Jesus prophesied a coming time of great pressu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many will be gripped with four predominant negative emotions1 due to a ***disconnect*** from Jesus through the lack of prayer (***Mt. 26:41***) and a ***disconnect*** (*Rom. 11:25*) from the plan and storyline of heaven–the gospel.  
     예수님은 이땅에 큰 압력의 시간이 올 것을 예언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뚜렷한 부정적인 감정1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도의 결핍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단절** (마 26:41)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천국의 계획과 이야기 줄거리 (롬 11:25)인 복음으로부터 **단절** (롬 11:25)되었기 때문이다.
  2. Youthful resilience will not stand in the emerging crisis. 2020 showed initial, emerging signs of deteriorating youthful resilience. In 2020, a larger-than-average amount of young adults (ages 18- 24) reported signs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56%). Compared to all adults, young adults are more likely to report substance use (25% vs.13%) and suicidal thoughts (26% vs.11%).  
     젊음의 회복력은 다가오는 위기에 서있지 못할 것이다. 2020년은 젊음의 회복력이 악화되는 초기의 징후를 보여주었다. 2020년에는 평균보다 많은 수의 젊은 성인 (18-24세)이 불안 및 우울 장애의 징후를 보고했다 (56%). 모든 성인과 비교하여 젊은 성인은 약물 사용 (25% 대 13%) 및 자살 충동 (26% 대 11%)의 보고가 더 높다.

## 30Even the youths shall faint and be weary, and the young men shall utterly fall …” (Isa. 40:30) 30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 40:30)

* 1. The answer Isaiah gives to the end-time church is to live lives of ***“waiting” on the Lord***, the experience of entering into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The Spirit calls the Church to her *inheritance* by experiencing God’s love in the context of engaging with the Trinity in fellowship.  
     이사야가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는 대답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즉 삼위일체와의 대화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교회를 자신의 **유업**으로 부르시는데 삼위일체와 교제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다.

## 3“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 40:31) 31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1 Mike Bickle uses the acronym F.O.L.D for Fear (Lk 21:26), Offense (Mt 24:10), Lust (Lk 21:34) and Deception (Lk 21:8).

1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F.O.L.D; 두려움(눅 21:26), 실족함 (마 24:10), 음란 (눅 21:34), 그리고 미혹 (눅 21:8)의 약어를 사용하신다.

# OUR GLORIOUS DESTINY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영광스런 운명

* 1. As believers we have an indescribable destiny and inheritance. The Trinitarian fellowship is our destiny. The scripture shows us that God “brings us *out* to bring us *in*.” He transitions us into union.  
     우리는 믿는 자로서 형언할 수 없는 부르심과 유업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부르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고 알려 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으로 전환시키신다.

## 1“…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 1“Do not be afraid, Abram. I am…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Gen. 12:1; 15:1) 1…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1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2:1; 15:1)

***4 “You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and how I bore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Ex. 19:4)*4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

* 1. “We shall never exhaust the wonder, the dazzlingly, enthralling drinking of limitless Beauty. Indeed, ‘eye has not seen, nor ear heard, nor can we even imagine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1 Cor. 2:9). The reason is that He has prepared Himself, endless enthrallment. Heaven is eternal ecstasy.”2 —Thomas Dubay  
     “우리는 경이롭고, 눈부시며, 매혹적인 무한한 아름다움을 마시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느니라' (고전 2:9). 그 이유는 끝없는 매혹으로 자신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천국은 영원한 황홀경이다.”2 —토마스 듀베이

## 34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Jn. 13:34) 34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26 “And I have declared to them Your name, and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Jn. 17:26)*26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 1. The Father’s plan is for a unified Church in union with the Godhead as His witness. This unity will be according to the love and union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e Church will walk in unified love in the way that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walk in love together.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증인으로서 신격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된 연합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연합에 따른 것이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함께 행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된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이다.

## 23 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an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and have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3) 23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 1. In John 17:6-26, Jesus prays and prophesies the future destiny of the Church –  
     요한복음 17:6-26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미래적 운명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언하셨다.
     1. That the Church would know the knowledge of God – 17:6  
        교회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소서 -- 17:6
     2. That the Church would keep God’s word – 17:6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 17:6
     3. That the Church would have full faith in Christ – 17:7-10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 17:7-10
     4. That the Church would be unified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 17:11, 20-23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소서 - 17:11, 20-23
     5. That the Church would enter in to the fullness of joy – 17:13  
         교회가 충만한 기쁨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 17:13
     6. That the Church would be delivered and kept from evil and compromise – 17:15-19  
        교회가 악과 타협에서 구원되고 보호될 것이다 – 17:15-19
     7. That the Church would experience deep experiential union with the Trinity – 17: 22-24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적 연합을 경험하게 하소서 – 17:22-24
     8. That the Church would experience the fullness of God’s love for God – 17:26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 17:26
  2. In John 13, Jesus shows us the standard of what is required. John 14 focuses on the access we have to the grace of God through intimacy (1 Cor. 2:12). John 15 focuses on how to engage the Trinity in intimacy. In John 16, we see the Church as a witness in a hostile world. John 17 shows our glorious destiny.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의 기준을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14장은 친밀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 2:12). 요한복음 15장은 친밀함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교회를 증인으로서 본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여준다.

## 26 And I have declared to them Your name, and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Jn. 17:26 26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2 Thomas Dubay, *The Evidential Power of Beauty* (San Fransisco: Ignatius Press, 1999), 44.  
2 토마스 듀베이, ‘아름다움의 명벽한 능력’ (샌 프란시스코: 이그나티우스 출판사, 1999), 44 페이

# THE BEAUTY OF JESUS AS THE SERVANT OF ALL – JOHN 13 모든 이들의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아름다움 – 요 13

## 7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What I am doing you do not understand now, but you will know after this.” (Jn. 13:7) 7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요 13:7)

* 1. John13 is a prophetic parable that unveils God’s humble love. Jesus displays the nature of His humble love towards God, His disciples, and His enemies. In John 13, Jesus shows His disciples that the nature of His ministry and leadership is forever established in divine humility. God’s nature is humble.  
     요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을 드러내는 예언적 비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분의 제자들과 원수들에 대한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의 본성을 나타내신다. 요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역과 리더십의 본질이 신성한 겸손에 영원히 확립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 하시다.

## 5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6who, being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nsider i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7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coming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5-7)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5-7)

* 1. Key to John 13 is verse 7. There is an unfolding of God’s humility as Jesus administrates the plan of redemption. I believe that God’s humility is a divine attribute. The Humble God is most foreign to the human heart. The implications are significant both personally as well as globally.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구절은 7절이다. 예수님이 구속의 계획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겸손이 펼쳐진다. 나는 하나님의 겸손이 초자연적인 성품이라고 믿는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낯선 분이시다. 그 영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

## 10 … hide in the dust, from the terror of the Lord and the glory of His majesty. 11The lofty looks of man shall be humbled, the haughtiness of men shall be bowed down … the Lord alone shall be exalted in that day. 12… shall come upon everything proud and lofty, upon everything lifted up (Isa. 2:10-12) 10 …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 (사 2:10-12)

* 1. The humility of Christ is revealed in the cross, His leadership in our lives, the administration of the agenda of God for the nations (Isa 49-55) and Jesus’ leadership in the ages to come as the Servant of Rulers (Isa. 49:7). It is the reason for which He came and will come again: He comes to serve.  
     그리스도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우리 삶의 그분의 리더십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행하심에서 (사 49-55장), 그리고 오는 시대에 통치자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리더십 (사 49:7)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이유이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신다.

## 45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Mk. 10:45) 45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37 “… when he comes, will find watching. Assuredly, I say to you that he will gird himself and have them sit down to eat, and will come and serve them. (Lk 12:37)*37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눅 12:37)**

* 1. A brief outline of John 13  
     요한복음 13장의 간략한 개요
     1. The great betrayal – Jn. 13:1-2, 21-22  
        큰 배신 –요 13:1-2, 21-22
     2. The Father’s love for His Son – Jn. 13:3-4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 요 13:3-4
     3. Jesus unveils Himself as the Servant of the Lord – Jn. 13:5-6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서 밝히심 – 요 13:5-6
     4. The coming understanding of the humility of God – Jn. 13:7  
        하나님의 겸손에 대한 다가오는 이해 – Jn. 13:7
     5. Receiving Christ as our Servant – Jn.13:8-11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으로서 받아들임 – 요13:8-11
     6. Christ our servant forever – Jn. 13:12  
        우리의 영원한 종 그리스도 – 요 13:12
     7. The humility of Christ as our example to follow – Jn. 3:13-20  
        우리의 따라야 할 본 되신 그리스도의 겸손 – 요 3:13-20
     8. Leaning on the Servant – Jn. 13:23-30  
        종이신 주님에게 기대기 – 요 13:23-30
     9. The servanthood of Christ and His suffering – Jn 13:31-33, 36-38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분의 고난 – 요 13:31-33, 36-38
     10. Command to walk in humble love – Jn 13:34-35  
         겸손한 사랑으로 행하라는 명령 – 요 13:34-35  
           
         ***34 …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at you also love one another. (Jn 13:34)*34 …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